

지하철 ‘풍경소리’ 철거 위기

코레일, 공문 보내 광고비 중용하며 게시판 철거 압박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15년 넘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줬던 지하철 포고·문화 콘텐츠 ‘풍경소리’가 철거위기에 놓였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최원해, 이하 코레일)는 지난해 12월 26일 풍경소리(대표이사 선부 혜자)에 공문을 발송해 철도 역사 내 풍경소리 게시판 무상 승인기간이 종료됐다고 고지한 후 1월 7일까지 광고계약 체결 의사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철거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풍경소리 측은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통보하면서 촉박한 기간내에 결정을 중용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풍경소리는 이 같은 의견을 코레일 측에 전달하며 내부 논의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은 1,3,4 호선 일부구간과 중앙선, 경의선, 분당선, 경춘선 등이다. 여기에 설치된 풍경소리 게시판은 278개역 836개에 달한다.

문제는 코레일이 풍경소리에 공문을 보내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철거를 진행했다는 데 있다. 풍경소리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7

일, 각 역에 풍경소리 게시판을 철거하고 이를 12월 9일까지 상부에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경소리가 이를 인지한 것은 12월 3일. 모 역으로부터 액자를 떼기가 힘들니 직접 와서 철거해가라는 전화를 받고나서였다. 이미 1백 개 이상의 게시판이 철거된 후였다.

코레일 “사찰명 있어 광고”
 1월 1만 6천원 일방적 책정
 연간 1억원 비용 기증 부과

풍경소리 “공익을 돈으로?”
 종단협 항의·자승 스님 서신
 개신교 측도 반대 입장 밝혀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총장은 “이는 15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 정성적 힐링 매체가 되어준 풍경소리를 한순간에 불법광고단체로 낙인찍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공익성을 요구받는 공기업에서 일상의 감동과 지혜를 담은 글의 게시판마저 광고로 간주했다는 것은 코레일이 황금만



지하철 역사 내에 걸린 풍경소리 게시판. 15년 넘게 전국 2천여 개의 역에서 감동어린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지만 철거 위기에 놓였다.

능주의를 나서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코레일이 책정한 광고비는 게시판 하나당 월 1만6천원이다. 8백개 이상의 역에 광고하려면 1년에 1억여원을 광고비로 지출해야하는 셈이다. 2, 5, 6, 7, 8, 9호선 등 나머지 노선을 운영하는 지하철공사 측에서 같은 요구를 해온다면 4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상당부분이 후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풍경소리 측에서 이를 부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계에서도

풍경소리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풍경소리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종단협의회에서 1월 13일 항의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같은 날 종단협회장 자승 스님은 코레일 측에 풍경소리 철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철거지시 이후 항의가 거세지자 “풍경소리 게시판 하단에 사찰명이 기재되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라며 “공적인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다면 사찰명을 삭제하라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용성 사무총장은 “풍경소리를 존속시키기 위해 가능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볼 것”이라며 “풍경소리 게시판에 보내주는 시민들의 지지가 높은만큼 서명운동 등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레일로부터 풍경소리와 함께 철거 대상에 오른 기독교계 ‘사랑의 편지’ 측과도 공동대응을 할 방침이다.

사랑의 편지 사무총장 류중현 목사는 “국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코레일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광고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연탄기부 릴레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들과 일반인들이 손에 연탄을 그렸다. 쪽방촌 노인들에게 연탄을 기부하기 위해 시작된 '아이연탄맨' 모금캠페인에 참여한 것이다. 손에 연탄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면 지목받은 이들은 5장의 연탄(3천원)을 기부하고 24시간내에 똑같은 포즈를 취한 후 다시 주변인에게 기부를 독려한다. 아름다운동행에서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후로 249명(1월 15일 기준)이 동참했다. 대불련 이채은 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자승 스님은 다음 주자로 중앙총회 의장 성문 스님,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중앙신도회 이기홍 회장 등을 지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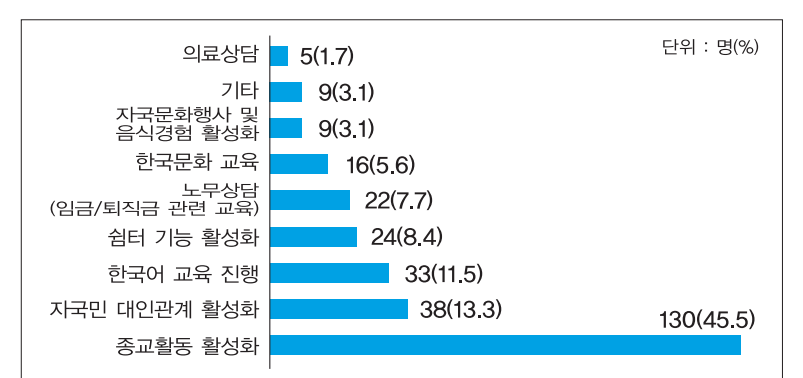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의 바람 ‘종교활동 활성화’

국제전법단·마주협

외국인 근로자 조사

응답자 80%가 불교
 개종 가능성은 낮아
 65% 실행 안하지만
 '실행 활성화' 요구 높아

〈표〉 종교기관에 대한 기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불교를 믿고,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자국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65%가 실행활동을 못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한 법회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조계종 국제전법단과 마하이주민주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가 최근 발간한 '불교 법당 이용자 대상 외국인 근로자 기초실태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국제전법단과 마주협은 외국인 근로자 1000명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446명이 조사에 응했다.

이들 결과에 따르면 80%가 불교도였으며, 이중 70%는 자국불교를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불

교와 힌두교는 7%가량으로 집계됐다. 한국 체류 이후 개종한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모국에서부터 믿어온 종교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64%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종교생활 실태는 좋은 편이 아니다. 주1회 이상 종교생활을 하는 비율은 42%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65%는 기관에 가는 기대도 '종교활동 활성화(45.5%)'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자국민 대인관계 활성화(13.3%), 한국어 교육(11.5%),

쉼터기능 활성화(8.4%)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상생활 주기에 적합한 맞춤형 종교활동을 고안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불가능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 외에도 정부의 제도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는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소통·화합·혁신으로 불교 미래 밝힐 것”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14일 신년기자회견

“종단은 안으로는 소통과 화합, 혁신을 기반으로 종단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며, 밖으로는 화쟁을 기반으로 공존과 상생, 합심의 새로운 기운을 우리 사회에 불어넣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무 운영 캐치프라이즈로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를 제시했다.

이 같은 기조에 대한 핵심 사업으로는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전지동 역사문

화관지원조성사업 △공존과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선언 등을 내놔다.

100인 대중공사에 대해 자승 스님은 “대중공사는 총무원장 선거 당시 공약 사항으로 종단 운영과 관련한 모든 의견에 귀를 열고자 한다”면서 “비판이든 견제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문을 활짝 열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동 역사문화관광지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민족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 가치를 재창조해나가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불교통일선언'에 대해서는 공존과 상생, 합심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로 준비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러한 질의응답에서 지난해 발생한 상좌들의 잇단 승품실추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법계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는 질의에 자승 스님은 “최근 상좌들이 음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후속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동

의하기 어렵다. 누구라도 법계를 저지르면 원칙대로 엄중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4년 멸빈자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중정 스님과 원로의장 스님께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계신 만큼,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해설 2번〉

열두 달 마음 농사의 풍경과
 대행 스님의 법어가 함께하는
2015 마음 다이어리

산뜻한 연둣빛 표지로 새롭게 출시된
 2015년 다이어리에는 대행 스님의 말씀과
 박희진 작가의 그림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는 공간-마음 다이어리와 함께
 하루하루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판매처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구입가 : 13,000원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품 상세보기 : 「한 그루의 숲」 검색 → 「숲속가게」 클릭

그림: 박희진